

## The Wasteland 요약문

1. 다문드예프는 그의 딸 루카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딸이 들개에게 목이 물리는 사고를 당한다. 그는 황급히 루카를 업고 병원으로 이동하지만 친구이자 의사인 누마드무는 루카가 이미 죽은 상태라며 냉정하게 수술을 거절한다. 이에 다문드예프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면서도 딸을 복원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날 이후 다문드예프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딸이 생전에 남긴 기록들을 수집한다. 심지어 그는 병원 측에 딸의 시체 해부를 요청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절당한다. 결국 며칠 후 루카의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다문드예프는 장례식장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2. 사고가 일어난 이후 들개에 대한 진상 조사도 진행된다. 그 지역의 들개들은 주변 도시의 주민들이 애완견들을 유기하면서 무리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진다. 경찰은 들개들을 위험 대상으로 간주해 포획 작전을 펼치고 안락사를 위해 개들을 이송한다. 순조롭게 들개 처분이 완수되려던 중 갑자기 다문드예프가 나타나 이송차량을 멈춰 세우고 직접 개들을 때려 죽이는 난동을 일으킨다.
3. 이 사건으로 다문드예프는 체포되어 심리사 할리나에게 취조를 받는다. 다문드예프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는 법의 심판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불운에는 납득할만한 논리나 구제의 가능성이 없었다며 울먹인다. 할리나의 도움으로 죄를 참작받은 다문드예프는 벌금을 납부 한 후 풀려났고, 이후로 어느 지하 연구소에 잠적하며 딸과 똑같이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루카] 개발에 착수한다.
4. 연구 초기 2년 간 다문드예프는 딸이 남긴 대화 기록을 학습시켜 [루카]를 만드려고 하지만 전혀 사람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한다. 이후 다문드예프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대화 내역을 무작위로 학습시켜 임의의 인공지능을 만든 후 진화시키는 방법이었다. 수많은 자료를 주입한 덕분에 인간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을 양산할 수

있었다. 다문드예프는 그 인공지능들 중에 루카와 비슷하게 대화하는 것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 그 후에는 살아남은 인공지능 간의 교배와 돌연변이를 통해 다음 세대 인공지능이 개발되었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공지능들은 조금씩 루카를 닮은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5. 연구의 성과에 대해 기대감이 차오르는 한편, 다문드예프는 건강의 악화와 회의감에 고통받는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누마드무로부터 환각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이 탓에 연구실의 쥐들과 대화하는 지경에 이른다. 쥐들과의 대화에서 다문드예프는 자신이 무의미한 연구에 삶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루카가 삶의 전부였다며 이 연구에 남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답한다. 다문드예프는 자신의 몸을 타고 다니는 가상의 쥐를 쫓기 위해서 온몸을 굶다가 잠이 든다.
6. 다문드예프는 꿈 속에서 루카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한다. 다문드예프의 부모는 부유하였지만 자식에게 무관심한 탓에 유년기 내내 다문드예프를 양육시설에 맡겼다. 그러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는다. 그는 애증을 품고 자리에 나서지만 그녀는 변명이나 사과 따위 없이 새로 낳은 딸이라며 아기를 맡기고 다시 떠난다. 그 모습을 보고 다문드예프는 가족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린다. 그는 어린 동생도 미워하며 방치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닮은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유일한 가족으로 삼는다. 다문드예프는 그녀에게 루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생대신 딸로서 아기를 키운다.
7. 잠에서 깬 다문드예프는 실험실로 돌아가 최후에 살아남은 [루카]를 확인한다. [루카]는 루카의 목소리로 생전 그녀의 대화를 완벽히 재현해낸다. 다문드예프는 [루카]가 모든 상황에서 딸처럼 반응하고, 자신과 새롭게 나누는 대화를 기억하고 성장하는 모습에 감격한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연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며칠 간 [루카]와 행복한 시간을 나눈다.
8. 그러던 어느 날 [루카]가 침묵한다. 다문드예프는 우려하며 [루카]를 타이르는데 [루카]는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며 슬픔을 토로한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기로 한 다문드예프와 달리 [루카]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란을 겪으며 다문드예프가 죽고 난 후 홀로 남겨질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를 들은 다문드예프는 자신이 루카에게 언제나 미숙한 아버지였음을 상기한다. 다문드예프는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모든 혼란을 포용하고 그저 [루카]에게 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하나의 목표만 남긴다.

9. 다문드예프는 잠깐의 행복을 뒤로하고 자신이 해오던 연구에 다시 몰두한다. 이번에는 루카가 아닌 자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다문드예프]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환각제를 섭취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수 년이 지나 그는 [루카]에게 돌아와 [다문드예프]를 전해준다. 둘이 다시 생기 넘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다문드예프는 작별인사를 중얼거리고 돌아선다. 이 순간 [다문드예프]는 다문드예프의 인사에 감사와 위로를 담은 답신을 전한다. 다문드예프는 마치 자신이 컴퓨터 속에서 인사를 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안심한다.
10. 다문드예프는 이제 자신도 루카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누마드무가 마지막으로 처방해준 약봉투를 열어본다. 그곳에는 알약 대신 총알 두 발이 담겨 있다. 다문드예프는 총알을 권총에 장전하고 총구로 천천히 얼굴을 쓸어내리다가 목에 총을 쏘서 자살한다.